산업통상자원부	보도참고자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2022. 12. 6.(화) 13:30	배포 일시	2022. 12. 6.(화)
담당 부서	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	책임자	과 장 정상용 (044-203-4380)
		담당자	사무관 김애경 (044-203-4384)

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산업부 장관, 주요업계 긴급 점검회의 개최

- 철강·석유화학·정유 등 금주 中 업무개시명령 검토 중-

- 물류 조기정상화를 위한 불법행위 대응에 업계의 적극적 역할과 동참 당부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2.6.(화)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**철강, 석유화학, 정유, 시멘트, 무역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상황 점검과 대응방안을 논의**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.

○ 이날 점검회의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그간 **출하차질에 국한되었던 피해가 생산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**하에 개최되었다.

【 긴급점검회의 개요 】

◇ 일시 및 장소 : '22.12.6.(화) 13:30 / 대한상공회의소
◇ 주요 참석자 : 철강, 석유화학, 정유, 시멘트, 무역 등 주요 업종별 협·단체 및 주요 기업, 산업부 업종별 담당 국장 등
◇ 주요 내용 :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①업종별 피해상황 및 대응 현황 점검, ② 향후 대응방안 등 논의

□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12일간('22.11.24 ~ 12.5) 철강, 석유화학, 정유, 시멘트, 자동차 등 5개 업종에서 출하차질 규모는 **총 3.5조원(잠정)으로 집계**되었으며,

○ **철강, 석유화학 분야**의 경우 누적된 출하차질에 따른 공장 내외 적재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업체는 이르면 **이번주 부터 감산을 검토해야 하는 등 생산차질 피해 가능성이 높아**지고 있다.

○ **정유 분야**는 '22.12.6.(화) 08시 기준, **전국 품절 주유소는 85개소로 확인**되고 있으며, **수도권 이외 강원, 충청**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.

* 재고부족 주유소 추이 (개소) : (11.29) 21 → (11.30) 26 → (12.1) 49 → (12.2) 60 → (12.3) 74 → (12.4) 88 → (12.5) 96 → (12.6) 85 (※ 11.29~12.5 14시 기준, 12.6 8시 기준)

** 12.6(화) 08시 기준 전국의 품절 주유소 : 총 85개소(휘발유 68, 경유 9, 휘발유·경유 8)
지역별 : 서울 27, 경기 21, 인천 1, 강원 10, 충남 9, 충북 7, 대전 8, 전남 1, 전북 1

○ 반면,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**시멘트**는 운송사 및 차주들의 운송복귀가 늘어나면서 **시멘트 출하량이 평시대비 88%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정상화되는 조짐**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.

□ **산업부는** 이러한 산업별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**업무개시명령이 즉각 발동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**한 상황이다.

□ 이날 회의에서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"국가 핵심산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**정유, 철강, 석유화학 분야의 피해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,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중**"이라고 밝혔으며,

○ "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, 엄정대응 원칙을 재확인하였듯이 기업들도 **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묵인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줄 것**"을 당부하고, 무역협회 등에서 검토중인 **중소화주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방안**도 다른 협단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